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No.383

상생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공단과 건설업계, 청렴의 길 동행

– 철도산업 비리근절, 불공정 관행 철폐로 청렴과 신뢰의 동반성장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는 지난 9일 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철도건설 시공사, 감리사, 용역사 등 150개사와 함께 정부3.0 상생토론회를 갖고 철도산업 비리척결, 건설근로자 임금 및 대금체불 방지, 원 · 하도급사 불공정 관행 근절과 부패 없는 청렴한 철도건설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협력사 관계자 150명과 공단 임 ·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을 기반으로 한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으로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윤리경영 및 비리예방 대책을 공유했으며 2014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한 동반성장 협력사로 동부건설(주) 등 8개사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150개 협력사와 공단 임직원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기업과 함께하는 KR의 다짐' 시간을 마련하고 「청렴은 내마음에 Ctrl+V(복사)」, 「부패는 내마음에 Ctrl+X(삭제)」라는 청렴 실천 각오의 글에 서명식을 갖는 등 청렴 실천의지를 확고히 했다.

아울러 상생토론회에서는 철도산업 비리, 건설근로자 임금 및 대금 체불, 원 · 하도급사 불공정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공단과 협력사간의 열띤 토론과 개선방향에 대한 해결책 제시 및 자정결의가 있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도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의도 함께 다졌다.

강영일 이사장은 "철도현장에서 더 이상 불공정 관행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철도 종사자들이 다 함께 노력하고 공단과 협력사가 협력해 청렴한 철도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협조를 요청했다.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기공식... 4호선 남양주까지 연장

– 2020년, 서울역까지 49분... 수도권 동북부지역 발전 기여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지난 10일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지역주민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접선(당고개 ~ 진접) 복선전철 기공식 행사를 시행했다.

진접선 복선전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광역철도사업으로서 작년 12월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금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4공구 우선 시공분 실시계획 승인을 득했다.

진접선은 총 1조 3,3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울지하철 4호선의 종점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별내 ~ 오남 ~ 진접까지 총 연장 14.8km 구간에 3개소의 역사가 들어서게 되며 2020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진접선이 완공되면 남양주 진접에서 서울역까지 49분이면 이동 가능하고 하루 3만 5천여 명이 이용해 남양주시 일대 국도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및 수도권 접근성 향상으로 수도권 동북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영덕~삼척 철도건설 기공식, 철도사업 본격 추진

– 접근성 대폭 향상 기대돼... 동해안 여행은 이제 기차로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지난 5일 경북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 고수부지에서 지역주민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덕 ~ 삼척 철도건설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착공하는 영덕~삼척 철도노선은 122.2km, 총2조 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인 포항~영덕간(44.1km) 철도노선과 연결해 2019년 개통할 예정이다.

* 포항 ~ 영덕 ~ 삼척구간 총사업비 : 3조4천억원

현재는 포항 ~ 삼척 구간 이동 시 버스로 3시간 10분이 소요되지만 2019년 철도가 개통되면 기차로 1시간 2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게 되며 장래 고속화 열차 운행 시에는 60분이내로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본부 관계자는 "철도노선 건설로 포항, 울진, 영덕, 삼척지역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어 풍부한 먹거리와 천연 관광지역인 동해안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내륙철도 시대 개막 '청신호'

–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는 내륙철도의 시발점인 수서~(경기도)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지난달 28일 '14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8천935억원으로 그동안 강원 및 중부내륙지역은 서울북부에서만 철도로 접근이 가능했으나, 향후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면 수도권 강남지역에서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강릉간은 현재 열차로 5시간 3분, 버스로 2시간 40분 소요되나, 수서~광주 복선전철 완공 후 원주~강릉 철도와 연계 운행하면 1시간 10분으로 단축되고 공사 중인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과도 직접 연결돼 중부 및 남부내륙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 관계자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여객이용자의 편의 개선 및 사업성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 고〉

□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수서~광주간 19.2km 복선전철
· 총사업비 : 8,935억원
· 사업기간 : 8년(설계3년, 시공5년)

· 추진경위
– '14. 7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사전조사 용역 시행
– '14. 8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14.11.28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14.12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예정